

전남,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여수산단 위기대응 TF팀 운영

세계감면 등 적극 지원...경찰·119상황실 경찰·소방관 교차 근무 재난시 유기적 대처

전남도 조직개편안 마련

최근 수출 부진과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의 위기대응을 위해 전남도가 전남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

또 재난 발생 시 유기적 대처를 위해 경찰 112 치안종합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과 소방관이 교차로 파견돼 근무토록 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26일 관련 법규 공포 이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

전남도 조직개편안은 크게 ▲소방·경찰상황실 협력체계 강화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추진단 구성 ▲대변인실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추진단의 경우 단장(4급)을 중심으로 화학철감팀(4명)과 가

칭 위기대응팀(3명)으로 꾸러지며 여수국가산단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세계감면 등 적극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석유화학산업은 전남 주력 산업으로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LG화학이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가 하면, 롯데케미칼도 일부 생산시설 가동을 멈추는 등 산업 전반이 활력을 잃어가는 실정이다.

중구·동남발 공급 과잉과 수출 감소, 수요 회복 부진 등 수익성 악화가 맞물리면서 전남의 석유화학 수출이 매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여수시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입 감소로 이어지는 등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방·경찰상황실 협력체계 강화 방안은 이태원 참사 당시 제기된 현장 대처 과정에서 경찰·소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

도를 비롯, 전국 시·도에서 내년부터 적용된다.

전남에서도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소방경 4명, '119 종합상황실'에 경찰 4명을 교차로 파견, 근무하는 게 가능해졌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7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기존 대변인실 규모도 확대한다.

전남도는 대변인실을 기존 비서실 내 연설문·메시지팀과 통합해 1국 2과(홍보기획담당관·홍보지원담당관) 체제로 기능을 확대, 조정한다.

전남도는 대변인실 기능 조정으로 전남 주요 프로젝트 등 역점시책에 대한 실·국간 홍보 조정,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 홍보·소통 강화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고흥·곡성·화순서도 대중교통 할인 'K 패스' 된다

도, 함평·장흥 등 15곳으로 확대

내년부터 고흥·곡성·화순·함평·장흥 등에서도 'K 패스' 가 도입, 대중 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남 10개 시·군에서 추진중인 K패스 제도가 내년부터 15개 시·군으로 확대, 지역민들에게 대중교통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때 최대 60회 내에서 교통비로 쓴 금액의 20~53%(일

반 20%·청년 30%·저소득층 53%)를 환급해주는 사업. 올해 5월부터 만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현재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등 5개 시와 담양·해남·무안·장성·신안 등 5개 군에서 시행중이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곡성·고흥·화순·함평·장흥 등에서도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는 또 참여하지 않고 있는 7개 군(구례·보성·강진·영암·영광·완도·진도) 등에서도 참여토록 독려한다는 입장이다.

전남지역 K패스 가입자는 1만 2282명으로 지

난 9월 말 기준 4억3900만원이 환급됐다. 1인당 월 평균 1만 4388원을 환급받았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전남도는 또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적은 지역 실정을 감안, 전남에 맞는 '맞춤형 K 패스'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키로 했다.

앞서, 전남도의회 송형근(민중·고흥 1) 도의원은 월 15회 이상 이용 시 환급해주는 K 패스 혜택과 관련,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월 5회로 완화하거나 하한선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일반 병·의원서도 개물림 치료 보험 적용

상해 사망·후유 장애·성폭력 범죄 위로금 등

도민안전공제보험 보장 항목 23개로 확대

내년부터 전남도민은 일반 병·의원에서 개에게 물려 치료를 받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민안전공제보험으로 보장하는 항목을 23개로 확대, 각종 재난이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어려운 도민에 대한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추진키로 했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

은 도민의 생명과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남도민이면 누구나 일괄 가입되는 보장성 보험이다.

전남도는 현재 '전남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조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20개 항목에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내년에는 일반상해(교통사고 제외) 사망·후유 장애, 성폭력 범죄 위로금, 개물림 일반 병·의원 진료도 보장 항목에 포함된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도민안전공제보험 제도를 운영, 올 3분기까지 1350명의 도민에게 18억 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는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애 60명(5억 300만원), 익사 19명(3억3700만원), 폭발·화재 사망·후유장애 15명(2억3200만원), 개물림 응급실 진료 110명(3000만원) 등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민 피부에 와 닿는 보편성이 높은 항목 보장을 확대하면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치매관리사업' 성과 공유회

장성군·담양군 우수사업 선정

장성군이 민관 협력을 통해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치매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 '장성형 치매안심 브릿지' 사업과 담양형 향촌복지 모델로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다함께 만드는 치매안심 마을' 사업이 올해 전남지역의 우수 치매 관리사업으로 평가됐다.

전남도는 지난 13일 신안 라마다앤씨원 리조트에서 22개 시·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 치매안심병원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를 열

고 우수 기관에 대한 표창과 사례를 공유했다.

치매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는 장성·담양·화순·완도군이 선정, 기관표창을 받았고 치매관리사업 우수자 4명도 수상했다. 장성군의 '장성형 치매안심 브릿지' 사업과 담양군의 '다함께 만드는 치매안심 마을' 사업은 우수 사례로 발표됐다.

전남도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올 한해 치매관리사업의 성과를 나누고 확산하는 한편, 치매 예방부터 치료와 돌봄까지 서비스 전 과정을 차질없이 제공해 나가는 데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24년 전남 일자리·경제 한마당' 행사 개최

전남도는 지난 13일 동부청사에서 '2024년 전남 일자리·경제 한마당' 행사를 열고 올해 성과를 공유하고 일자리 우수 기업과 시·군을 시상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서는 양질의 고용 창출 및 일·가정 양립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20개 우수 기업이 선정돼 고용환경개선자금(1400만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혜택을 제공받게 됐다.

또 광양시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 가운데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나주·화순은 최우수상, 여수시와 영암·영광군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 등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진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수산물 소비 촉진에 공을 쏟아 대상을 받았다. 목포시와 영광군은 최우수상, 여수·순천시와 화순군은 우수상을 받았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광양시가 대상을 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도, 겨울철 양식장 저수온 피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

전남도가 겨울철 양식 수산물 피해 예방을 위한 저수온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겨울 연안 수온은 평년보다 1~3도 높지만 일시적으로 강한 한파가 발생해 급격히 수온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수산물학원 예보 등을 고려해 단계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총력 대응 체제로 돌입한다.

전남지역 해상 가두리 258개소에서 양식하는 돌류 1200만 마리는 저수온에 취약하다.

양식생물의 경우 수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사료 섭취와 소화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8도 이하에서는 면역력이 약해져 폐사할 수 있어 조기 출하와 면역 증강제 공급이 필요하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수온 정보 및 특보상황을 신속 전파하고 우심해역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예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13개 시·군에 368억원을 지원해 면역증강제 공급, 수온 유지를 위한 히트펌프 등 저수온 대응장비를 구축하고 양식장 관리실태도 중점 지도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환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병원 부모님을 모셔도 좋은 "동행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치료실 운영
중풍재활 / 인지기능 수술후 재활

요양병동 운영
일반요양 / 전담간병인실운영 (24시간 간병인 상주)

한의 집중치료
침·뜸·부항·약침·물리요법 등의 치료실 운영

의학, 한의학 협진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 수술 후 재활치료 | 근골격계 통증치료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가 병원1층에서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직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 인증기간 | 2020.10.19 ~ 2024.10.18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 062) 720-2000